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시점 2026. 11. 19.(목) 10:00 (2026. 11. 19.(목) 석간)

노사발전재단, 한·일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심포지엄 개최

- 양국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 도쿄서 한자리에

-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및 기업의 우수사례 공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일본 도쿄에서 「한·일 노동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 - 실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의 노동계·경영계·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양국의 고용노동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경험과 기업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의 개회사, 일본 후생노동성 오쿠무라 히데키 국제노동담당 심의관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일본의 타카미 토모히로(JILPT) 연구원이 '일하는 방식 개혁(Work Style Reform)의 주요 정책'을,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기업의 인사관리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일본의 오학수(JILPT) 특임연구원이 일본 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를,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관리, 휴가 사용 촉진, 업무 효율화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양국 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봤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한·일 공동연구와 심포지엄이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업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노사정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일본 방문 기간 중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KOTRA 도쿄무역관과 면담을 갖고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해외노동정보 AI’ 구축 방안 등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동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본부	책임자	팀 장	류혜영 (02-6021-1073)
		담당자	과 장	이한솔 (02-6021-10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